

뉴스 & 뉴스

부산청소소년자원봉사단 발족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일 제5대 청소소년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8일 거리청소, 캠페인 활동을 펼친 1백50명의 봉사단원들은 2백33일간 해림사에서 사찰예절교육, 발우공양, 묵언 등의 자아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대구 도성암 객사 전소

대구광역시 유기면 비슬산 도성암(조실 승전)에 7일 새벽 4시30분경 화재가 발생, 객사 20여평을 전소시키고 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청소년지도자 정예화 추진

파라미터 청년협회(회장 현근)는 구립 27~28일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제1차 불교청소년 지도자 일반연수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는 불교청소년 지도자들을 정예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 불교학, 신학활동, 청소년학, 수련활동 등 26시간에 걸친 교육과정을 운영, 교계 청소년지도자 연수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대불청 회장 이·취임

대한불교청년회는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18일 오후2시 조계사 대웅전에 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대씨가 제 19대 회장에 취임한다.

중앙신도회 회보 창간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5일자로 '중앙신도회보'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에는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법어와 송회장의 창간사, 각 교구신도회장의 축하메시지, 기획특집-중앙신도회에 바란다 등을 실었다. 중앙신도회는 회보를 매월 타블로이드판 12면 분량에 법문, 시, 필담, 교구신도회 소식, 신학단체 소개 등으로 꾸며 5천부씩을 발행할 계획이다.

염불만일회 8월 재결성된다

고성 건봉사 주축 전국 규모...매년 성지대회도

1905년 한일합방으로 맥이 끊어졌던 고성 건봉사를 주축으로 한 전국 규모의 염불만일회(추진 대표 보광·해장스님·김재일법사)가 재결성된다.

전국염불만일회는 발원대법회 세미나 등 준비모임을 거쳐 8월3일 공식 출범한다.

발원대법회(삼국시대)이 795년 건봉사에서 처음 결성한 이후 원효스님으로 이어지며 삼국통일의 과업을 이루는데 밑바탕이 됐던 염불만일회. 정신을 다시 재현하는 전국염불만일회는 1년동안 각 가정에서 회원들이 <아미타삼부경> 봉독 및 사경, 사불, 염불, 108배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1년에 한 번 2백33일동안 건봉사에 모여 성지대회를 연다. 공동추진대표인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은 "염불만일회는 역사적으로 국난이나 불교탄압시, 중단이 부패했을 때 많이 활성화됐다"며 "현재 각 사찰에서 하고 있는 백일, 천일회향기도도 염불만일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봉사는 지난 1~2일까지 1백2일동안 주지 해장스님을 비롯 김재일법사 등 동산반야회 소속 염불만일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불만일대법원 토론회' 및 '등공대 탐독이' 행사를 개최했다.

범종소리 없는 길상사 주거시설 타중 불가 개원 한달째 '침묵'

고급요정에서 청정수행도량으로 탈바꿈, 구립 14일 3천여명이 모여 성대한 개원식을 치른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주지 청학)는

개원 이후 길상사를 찾고 있는 이들은 범종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는 길상사가 대원각시절 특색한 '근린생활사당'에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 성북구청 건축과 이춘만계장은 "현재 길상사는 용도 변경 신청에 있다"며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길상사 주변지역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타중은 범을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길상사 총무 덕조스님은 "길상사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타중을 금해야 하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이다"며 "하지만 타중은 사찰에서 행하는 경건한 의식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허락하여 줄 것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대해 길상사 총무 덕조스님은 "길상사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타중을 금해야 하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이다"며 "하지만 타중은 사찰에서 행하는 경건한 의식이니만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허락하여 줄 것을 성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쌀 한가마만 분량의 식량이 필요한데 부족 줄어든 후원손길

로 씌어져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또 대구불교사회복지회도 매월 자동이체 후원금이 20% 줄었다. 해마다 연말연시만 되면 복지단체를 향한 후원자 행렬이 신문지상의 한 모서리를 장식 하지만 올해는 IMF한파가 그 발걸음 공공연하게 만들어졌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의 보조금과 사회단체의 기부후원금 등으로 연명하는 복지단체들은 후원금 모집을 위한 행사성 사업을 자제하는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후원자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복지단체는 자구책으로 '석유 11 후원자 모집한다'는 홍보전단을 직원들이 직접 나서 배포했다. "오는 설날에는 부득이 회원들에게 양말과 식료품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맏인불자 가족같이 정을 나누는 연중행사중의 하나였는데..."

모진 한파는 세밀온정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음이 넉넉하고 부유하면 물집은 그에 상응하게 마련.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돕는 온정은 어떤 한파도 녹일 수 있는 난로이다. 이웃사랑에는 거품이 있을 수 없다.

나라사랑금모으기 불교참여 호소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 불자 나서자" 종단합-조계종 등 '불교참여 호소문' 발표

나라 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불교계도 발 벗고 나섰다. 종단합의회와 조계종은 한국방송공사, 주택은행, 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기로 하고 8일 '불교참여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오늘의 경제 위기를 더 큰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불자와 국민 모두가 금모으기 운동에 수회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에 동참을 호소했다.

관람료사찰 수입 절반이상 감소 '운영 고통'

신도조직화등 자구책 시급

IMF시대를 맞아 각 관람료사찰이 수입격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체질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백양사의 경우 운영비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관람료수입이 50% 감소했으며 대문사의 경우 80%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교강제지역인 영천 은혜사도 최근 일주일간 관람객이 고작10여명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관람료수입에 의존해온 교구본사사찰의 운영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신도포교강화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관람료인상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흥역을 겪은바 있는 교계 내부에서도 일부 관람료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있었다. 관람료폐지 주장은 사찰이 관람료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신도포교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좋은 여건을 활용하지 못하고 대중포교 프로그램을 시행에 등한시켰다는 분석이다.

위기가 기회이듯 IMF가 관람료사찰에 새로운 바람으로 작용했다면 한다는 교계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의 관행을 반성할

때가 됐다는 의미이다. 사찰운영에 거품을 제거하고 포교팀을 실질적 운영을 통해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사야 하며 신도화보와 조직화도 앞장서야 할때라는 분석이다.

이들위해 교계에서는 도심사찰의 신도조직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회를 활성화하여 신도조직을 강화고 재정수입의 안정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방안은 사찰이 특성을 살려 신도들을 지역적으로 나눠 집조지향대로 운영 조직을 확장하고 대형시주에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신도들이 매주 법회에 참석하여 시주하는 형태로 사찰수입을 안정화 시키자는 것.

모 본사사찰의 재무국장님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허황되게 살았다"며 "이제부터라도 관람료에 의존하지않는 토대를 이루도록 신도포교에 나서야 할때"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전국교사불자련 18일 창립

회장 임완숙씨 내정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법회가 18일 오전10시 금산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비롯 서울·경인,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전주·전북, 강원, 제주지역교사불자회

회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창립준비위원장 임완숙씨(서울·경인교사불자회장)는 "불교세계관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교사불자들의 인격도야와 유대강화, 정보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포교에 기여키 위해 전국모임을 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대회장에는 창립준비위원

장인 임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계종포교원과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6~18일 금산사에서 제3회 교사불자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참선수행과 강의, 불교학 생희 운영사례 발표, '교사불자회의 역할' 주제와 분과토론, 수계시 등으로 진행된다.

영남불교대 '자비의 걷기운동' 불교사회학 '따뜻한 손내밀기' 이웃돕기 캠페인 '훈훈'

경제적 불안으로 불우한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시행을 펼치고 있는 단체가 있어 잔잔한 화제.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이 '자비의 걷기운동'을 실시한데 이어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이 '따뜻한 손 내밀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섰다.

영남불교대학은 구립 27일 대구시내 일원에서 자비의 걷기운동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모금활동을 펼쳤다. 남구 불덕동 영남불교대학에서 출발해 반월동 대구백화점을 거쳐 시민회관까지 진행된 이날 걷기운동에서 모금된 성금 전액은 지역내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은 구립 20일부터 '따뜻한 손 내밀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불우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이란 주제의 이번 캠페인은 무기한으로 실시된다.

보시금은 은행계좌(국민은행 604-01-0457-311)와 우편과 전화(0561-41-0762)로 접수받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보시금은 소년소녀가장, 통도사자비원, 청송고도소 등의 시설을 방문, 겨울나기 생필품과 생활금으로 전달된다. 연구원 측은 "작은 정성이 모여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중앙일보 시카고지국 불교 의도적 편향 조계종포교원 해명 요구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 12월29일 중앙일보 사장 앞으로 '중앙일보사 종교편향 사체에 대한 해명요구의 건' 제하의 공문을 보내 최근에 있었던 중앙일보 시카고지국의 종교편향 사건에 대한 해명과 관련자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포교원은 이 공문에서 중앙일보 시카고지국이 98년도 '중앙일보 한인업소록'을 발간하면서 종교간 부분에서 불타사 불심사 봉불사 선려사 등 4개 사찰을 제외하고 △97년도 한인업소록에 불타사와 광고신탁을 계약하고 광고료까지 수령하고도 광고를 게재치 않았으며 △이같은 행위에 항의하는 스님들에게 이 지국의 사업국장이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사 사장 비서실은 8일 포교원의 공문과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를 곧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 소리

이 운 호 <대구 주재기자>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웃사랑 거품없다

이웃사랑 거품없다

이웃사랑 거품없다

이웃사랑 거품없다

이웃사랑 거품없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게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btv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